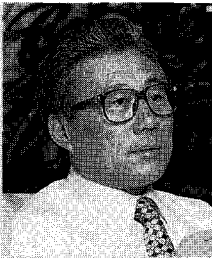


저평량 고강도 골심지 신공장 완공, 가동

품질 향상 및 원가 경쟁력 확보, 수출 확대 기대



정 태 화
아진제지공업(주) 대표이사

현재 계속되는 국제 유가급등은 대응수단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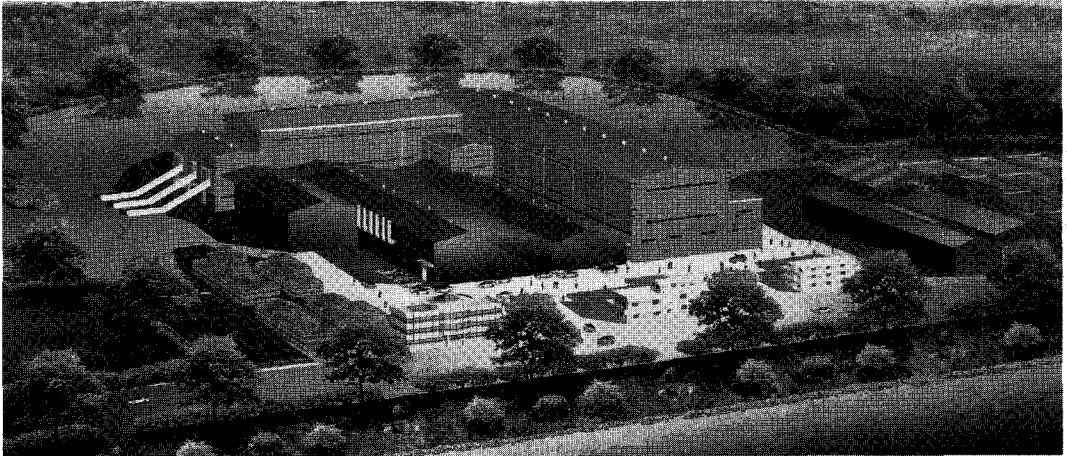
특히 PE, PP, PVC 등 유화원료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플라스틱 가공업종은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40% 상승했음에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제지 업계의 경우, 원재료 부문보다 동력, 연료비 증가로 인한 원가상승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골판지, 백판지 등의 산업용지의 가격인상요인 발생이 우려되는 등 포장업계 전반에 걸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

대중국 수출이 가져온 위기와 함께 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떨어짐에도 연일 계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제지업체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연간 15만톤을 생산할



▲ 아진제지공업(주) 제품창고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아진제지공업(주)

수 있는 저평량 고강도 골심지 신공장을 완공, 제2의 도약을 꿈꾸며 가동에 들어간 아진제지공업(주)(대표이사 정태화)을 찾았다.

1975년 11월 아진제지공업사로 설립된 아진제지공업(주)은 1980년 5월, 아진제지현풍 새마을 공장을 건설한 이후 1985년 7월, 법인 전환, 장망식 초지2호기를 건설한다.

1996년 구지고봉공단에 아진포장공업(주)를 건설, 2002년 10월 아진포장 구지 제2공장을 건설한 아진제지공업(주)은 현재 대구 달성군에 140명의 아진가족이 함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산업 포장용

골심지 생산업체이다.

현재 아진제지공업(주)은 골판지의 중심에 위치해 파형의 골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골심지로 종이 상자의 중심부에 주로 사용되는 S원지를 비롯, 포장용 상자의 제조시 상자의 용도에 따라 이면지 또는 표면지로 사용되는 K2 원지, 농산물, 공산품 등 고압축 강도에 적합한 강화골심지를 생산하고 있다.

“항상 새로운 창의력과 진취적인 자세로 근무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궁극적으로는 당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제품의 품질 고급

화를 통하여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대외적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제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정태화 대표이사의 경영방침대로 아진제지공업(주)은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 고품질제품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성장해 왔다.

실례로 지난 1992년에 새마을 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 1997년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를 공고히 했으며, 산업포장, 대구광역시 노사화합대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제지업계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도 했다.

A-Jin

지난 8월 28일 장망식 초지 3호기를 완공식을 통해 사업 영역의 전문화에 한층 도약한 아진제지공업(주).

3백50억원을 투입해 연간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저평량 고강도 골심지 신공장에 대한 아진제지공업(주)의 사업구상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한세종합건설에서 건

축 및 구축물공사를 시공하고 일본 도미오카, 태광아스팩, 금성제지기계, 세일기계, 한양기계 등 30여개의 업체가 기계설치에 참여, 올해 3월에 완공하고 시운전 가동하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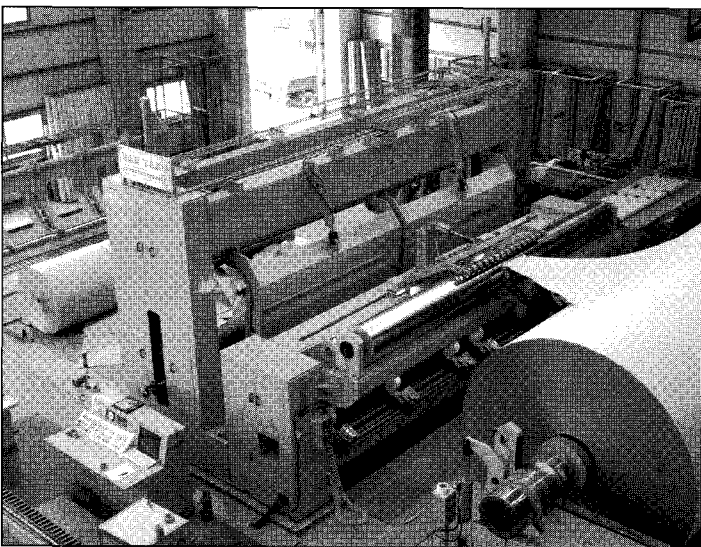
초지3호기를 통해 아진제지공업(주)은 종이 무게 1백5g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되던 1백20g짜리 제품 보다 종이량은

줄이면서 강도는 15%가량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해 채산성을 높인 것.

아진제지공업(주)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총투자비 320여억원을 투입, 부지 약 5,000평을 추가 구입하고 공장건물 4,000여 평을 건설했다”며 기계폭 6,000mm 최고 분속 550m/min, 일일생산 500톤의 최신초지기를 설치하면서 저평량 고강도 골심지 신공장을 준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진제지공업(주)은 산업포장용 종이제품의 수요증가로 공급이 부족했던 중국시장과 품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의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신규설비 증설 및 기존설비 보관을 통해 총 생산규모를 연간 25만톤 규모로 늘리면서 생산량면에서 국내 3대 골심지



▲ 아진제지공업(주) 설비



◀ 8월 28일 열린 조지 3호기 증설 준공식

생산설비를 갖추게 된 아진제지공업(주)은 올해 전체 생산액의 30%에 해당하는 1천5백만달러를 수출 할 포부를 갖고 있으며 더불어 제품 품질의 향상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 창출, 지역사회의 이익환원과 고용 창출, 다량 생산 체제로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객만족에 대한 책임' '직원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의 세 가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정태화 대표이사.

그는 고객만족에 대한 책임의 실천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

익 창출을 위해 적절한 상품가격을 유지하고 원가절감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또한 사원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적의 근무환경 제공을 통해 직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자연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실천하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위해 애쓰고 있다.

아진제지공업(주)은 향후 일산 1,000톤과 저평량 고강도의 재활용 골심지 생산을 목표로 꾸준한 기술 개발과 신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수행중인 정태화 사장은 국내외 시장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제지업계를 바라보며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수익성의 악화가 악순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사업 활성화로 불황을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지난 30여년 간, 환경 친화적 사업인 제지, 포장, 산업기반인 기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의 전문화를 추구하면서 발전해 온 아진제지공업(주)은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발전과 고객신뢰를 기본으로 국내 제지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

박초혜 기자